

## 중국 핵무기 전력의 개발과 운용: 대미관계의 관점<sup>1)</sup>

서정경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

- I. 서 론
- II. 중국의 핵개발과 미국
- III. 중국의 핵전력 : 미국 대응의 관점
- IV. 결 론

###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전략 핵무기 인식과 정책을 미국과의 연관성 속에서 분석하는 데에 있다. 1964년 10월 핵실험에 성공한 중국은 이후 줄곧 핵보유국으로서 자신의 이익관에 의거해 핵전력을 운용해왔다. 중국은 자신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또한 가할 수 있는 국가로 미국을 꼽아왔으며 핵정책을 포함한 중국의 총체적 안보구상에는 줄곧 대미인식이 심도 있게 반영되어왔다.

오늘날 중국의 핵전력은 중국의 안보환경에 상당히 중요한 미국이나 러시아 등 강대국에 비해 객관적으로 취약하다. 냉전시기를 거치며 미국과 소련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상대를 궤멸시키기에 충분한 첨단 핵무기 전력을 갖춘 것에 비해, 중국의 핵무기는 양과 질 두 가지 면에서 모두 현저히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또한 중국 핵무기정책은 선제불사용 원칙과 최소억제전략을 표방하며 강한 방어성을 특징으로 한다. 강대국 간 핵경쟁에 뛰어들지 않고 천문학적인

1) 본 글은 줄고, “중국의 ‘도덕정치문화’와 외교 : 핵 인식과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18권 2호, 2012년의 내용 일부를 바탕으로 새롭게 업데이트 한 것입니다.

비용을 경제성장에 투입하며 자국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핵무기만을 확보해온 것이다.

시진핑 시기 군개혁과 맞물린 사드 이슈는 중국의 행정책에 미묘한 파장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에 충분한 강한 역내 안보 영향력을 갖추려는 시진핑 시기 중국의 국방력 강화 움직임은 일정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드를 계기로 중러 간 군사협력을 크게 강화하거나 핵보유고를 가시적으로 늘리는 것은 중국에게 양면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

## I. 서론

“한국의 사드(THAAD) 배치는 동북아 핵경쟁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이라는 한 중국전문가의 분석에는 사드를 동북아 핵전력 경쟁국면의 중대한 분수령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내재되어있다. 1964년 10월 핵실험에 성공한 중국은 이후 줄곧 핵보유국으로서 자신의 이익관에 따라 핵전력을 운용해왔다. 주지하듯 행정책을 포함한 중국의 총체적 안보구상에는 줄곧 대미인식이 심도 있게 반영되어왔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장제스와의 치열한 내전, 미소 간 강경한 이데올로기 대립, 미국의 한국전 및 베트남전 개입, 미국의 대만 지원 및 무기 판매, 미국의 남중국해 개입 가능성 등 중국의 눈에 비친 미국은 자신의 안보환경에 가장 큰 위협과 과제를 제공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강대국으로 자리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핵전력은 중국의 안보환경에 상당히 중요한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객관적으로 취약하다. 냉전시기를 거치며 미국과 소련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상대를 궤멸시키기에 충분한 첨단 핵무기

전력을 갖춘 것에 비해, 중국의 핵무기는 양과 질 두 가지 면에서 모두 현저히 뒤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외교전략상 줄곧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 외교를 최상층에 놓고 주력해 온 중국은 정작 핵전력 증강 및 경쟁에 치중하지 않았다. 사실 원자폭탄에서 수소폭탄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미국의 경우 86개월, 소련은 75개월, 영국은 66개월, 프랑스는 105개월 걸린데 비해 중국의 경우 단 3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처럼 중국의 핵무기 진전 속도가 타국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 사실은 과거 중국이 핵무기 개발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러나 중국이 정작 핵 보유 이후에는 미국이나 소련 등 기타 핵 강국들에 비해 핵무기 보유고를 천천히 늘렸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현재 자국의 위상 제고를 뒷받침하는 국방력 증대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경제성장과 함께 빠르게 증가되어왔다. 시프리(SIPRI)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제2의 무역대국으로 자리한 2010년보다 2년 더 빠른 2008년에 이미 중국의 국방예산은 일본의 방위예산을 넘어섰다. 중국의 국방비는 산정하는 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정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중국 스스로 발표하는 국방비 증가율도 한동안 두 자리 수를 기록했고 전 세계적 경제 침체기인 올해에도 7%에 달하며 항상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편 2016년부터 불거진 한국의 사드 배치 이슈는 개혁의 진통을 겪고 있는 중국 군부의 강한 반발과 함께 중국 국내 핵전력을 포함한 국비 강화 목소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중국 군부 및 관계자들은 사드배치로 인해 동북아 핵전력의 균형이 깨질 것이라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도 공개적으로 사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진핑 시기 들어 핵전력을 포함한 국방력 강화 의도가 강한 군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주석은 취임이후 “중화민족의 대부흥”을 제시하였고, 전임자들에 비해 강대국 지위 추구에 대한 보다 강한 열망을 선보여 왔다. 중국 국내에는 핵 개발 및 이를 뒷받침하는 원전산업이 강대국 외교를 뒷받침하는 점점 더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중국이 필요한 경제의 안정적 지속성장 및 경제개발과 환경과의 균형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핵의 운용은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며 강대국 지위 구축에 효율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전략 핵무기 인식과 정책을 미국과의 연관성 속에서 분석하는 데에 있다. 분석의 출발은 중국의 전략 핵무기 인식과 정책에 미국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이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의 국방정책 특히 핵전력에 미치는 미국요인의 중요성을 규명하고, 중국의 핵전력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며, 시진핑 시기 중국 군비 강화의 방향성을 전망하려는 것이다.

## II. 중국의 핵개발과 미국

### 1. 핵개발 배경

중국의 핵무기 보유는 대내적으로는 광기 어린 문화대혁명시기를,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핵무기 개발 경쟁 붐 속 미국 등 타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얻어낸 일종의 성과였다. 이러한 중국의 핵개발 동기는 미국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49년 성립된 신생국가로서 중국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 간 이원적 국제체제를 맞이했다. 중국은 당시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제국주의 세력이 다른 약소국들을 압박하고 유린하는 불공정한 상태라 규정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여겼다. 중국은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만들어 세력범위를 나누고, 제국주의 세력 간 상호관계는 종종 패권쟁탈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사회주의를 소멸시키려는 특성을 갖는다고 보았다.<sup>2)</sup>

소위 ‘미제국주의’로부터의 핵위협은 중국의 양대진영론적 세계관을 강화시켰을 뿐 아니라 중국으로 하여금 핵개발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주요한 대외요인으로 작용했다. 1945년 미국에 의해 최초로 핵무기가 개발되고 소련이 뒤를 이어 핵보유국이 되면서 각국은 핵도미노 현상에 의한 팽팽한 긴장감에 봉착했다. 중국은 자국이 1950년 6·25전쟁 발발 이후 미국에 의해 연거푸 핵위협을 당했다고 인식한다.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미국은 핵폭탄을 탑재한 B-29기를 괌에 배치시켜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중국에게 보냈다. 정전협상이 지지부진할 때에도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가 핵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중국의 위협 인식을 제고시켰다.

휴전 이후에도 중국이 느끼는 미국의 핵위협은 지속되었다. 1958년 제2차 금문도 사태시 미 공군이 중국에 대한 핵공격까지 추진코자

2) 謝益顯 著, 鄭載南 譯, 『新中國 外交理論과 原則』(서울: 아세아문화사, 1995) pp. 103-104.

했다가 철회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1990년대 이래 미국 내 비밀 해제된 자료들이 공개됨에 따라 널리 알려졌고 이에 따라 중국 학계는 중국 핵실험과 강대국관계에 관한 비판적 연구작업을 활발히 진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저술활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으로 나뉜다. 첫째, 중국의 핵개발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상호 반응 및 대책에 대한 평가. 둘째, 미국이 선제공격식으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여 소련과 연합하여 중국 핵시설을 공격할 것을 고려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연구. 셋째, 미소 양국의 핵실험금지담판과 중국의 핵실험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등이다.<sup>3)</sup>

미국 외에도, 같은 사회주의국가이자 동맹국인 소련이 대미관계를 완화하고 이념적으로 퇴보하면서, 특히 자신에 대한 위협수위를 제고 시킨다는 판단은 중국의 핵개발 동기를 더욱 자극시켰다. 모택동이 핵무기가 국가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차대한 위치를 자각하고 원자력 사업을 발전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1955년 1월이었다.<sup>4)</sup> 1959년 소련은 ‘신국방기술협력협정’을 폐기하며 중국의 원자력 개발에 대한 지원을 일방적으로 철회했다. 모택동은 “스스로 하자, 처음부터 하자, 그리고 8년내 우리의 원자탄을 갖자!”라며 국방첨단기술 동원령을 내렸다.<sup>5)</sup> 이후 중국은 최단기간 내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 플루토늄탐

3) 胡禮忠, “中國的核試驗與中美核關係: 中美學術界的相關研究述評,” 『歷史教學問題』 2008년 제3기, p. 89.

4) 1956년 핵무기개발부처가 새로 신설되고 1957년 중소간 방위기술협조조약(中蘇國防新技術協定)이 맺어졌다. 이듬해 가을 소련의 핵공업원자로 및 가속기가 중국으로 이양된 후 중국 최초의 종합적 성격의 원자력과학기술연구기지가 탄생하였고, 여기에서 연 2.5t의 플루토늄 배출능력을 가진 첫 원자로가 가동되는 등 중국의 핵개발은 순조롭게 이뤄지는 듯 했다.

5) 編輯部, “中國核武器: 一生的事業,” 『中國核工業』 p. 56.

연구는 중단하고 우라늄탄 연구에 매진하였다.<sup>6)</sup> 1963년 미국과 소련이 자국의 이익관에 기반하여 부분핵실험금지조약을 추진하자 핵을 개발하고 있던 중국은 미소 양 대국이 핵을 독점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세계평화를 위해 핵무기는 남김없이 폐기되어야 하며, 지하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핵실험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조인을 거부했다. 아울러 미, 소, 중,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비핵지대, 중유럽 비핵지대, 아프리카 비핵지대, 라틴아메리카 비핵지대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바로 다음해인 1964년 중국은 자신의 핵실험에 성공하여 핵보유국이 되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의 핵무기 전력의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다. 중국은 10월 16일 20kt의 우라늄탄 실험에 성공하면서 핵보유국에 등극했을 뿐 아니라, NPT가 인정하는 마지막 정식 핵보유국의 지위 그리고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의 자리까지 확보하였다.

1966년 10월에는 핵탄두를 장착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동평-2호’의 발사를 성공시킴으로써 실제적으로 핵무기 공격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1967년 6월 17일에 이르러서는 미국 내부에서조차 인도적 관점에서 격렬한 찬반논쟁이 벌어졌었던 수소폭탄까지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중국은 명실공히 핵보유국의 위치를 굳혔다. 중국의 핵무기 성공사례를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핵개발에 성공한 다른 나라들 - 미국, 영국, 프랑스

6) 중국 국가과학위원회는 소련이 원조하기를 거절했던 첨단 신기술 원료 및 재료(약칭 신형재료)를 연구개발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해 원래 국방군공 협력임무를 맡았던 국가과학위원회제1국(國家科委一局)이 신재료국(新材料局)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협력팀이 세 개로 구성되어 유기적 관련을 맺었다. 제1팀은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위원회, 일기부(一機部), 삼기부(三機部), 물자부로 구성된 재료, 설비팀(5명), 제2팀은 미사일연구설계원, 중국과학원, 국가과학위원회로 구성된 미사일연구개발협력팀, 마지막으로 이기부(二機部)는 중국과학원, 국가과학위원회로 구성된 핵무기연구개발의 협력팀이었다. 劉西堯, “我國‘兩彈’研制決策過程追憶,”『武漢文史資料』2011年 第2期, p. 4.

과 비교하면, 산업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중국의 경우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sup>7)</sup>

## 2. 중국 핵무기 개발 및 운용의 특성

### (1) 핵무기 개발의 명분과 특성

중국에게 있어 핵무기의 개발은 현실적으로 미소 양 대국으로부터 생존을 보장하고, 열등한 자국의 국력을 크게 증진시켜줄 수 있는 채거였다. 아울러 핵무기를 통해 미제국주의에 대항하고, 핵무기 없이 강대국의 핵위협에 직면해있는 피압박민족을 보호할 수 있다는 도덕적 명분을 쌓는 데에도 유용한 것이었다. 중국은 핵무기 개발 당일 공식 성명을 통해 자신의 목적은 핵의 전파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핵을 전면 폐기하기 위함이라 강변했다. 자신이 비록 핵무기를 가졌지만 이는 다른 어느 핵보유국처럼 핵을 통해 타국을 위협하고 세계평화를 교란하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핵전쟁을 반대하고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국적으로 자신이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논리이다.<sup>8)</sup>

이러한 명분과 같은 맥락에서 중국의 핵무기 개발 및 운용에는 미국 등 기타 핵보유국들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우선 중국의 핵무기는 방위적 성격이 짙다. 다른 핵보유국들의 일반적 상황과는 다르게 중국은

---

7) 김태우, “지역패권 확보 위해 핵보유 강행: 중국핵과 우리의 입장,” 『통일한국』 1993년 8월호 (통권 제116호) p. 40.

8) 중국 중앙문헌연구실과 중국 서류관(中共中央文獻研究室與中國檔案館)에 편찬한 『黨的文獻』에서 중국은 자신이 핵실험을 한 목적은 핵무기를 전면금지하고 철저히 폐기함으로써 핵보유국의 핵독점을 타파하기 위함이라 밝히고 있다. 『黨的文獻』中共中央文獻研究室與中國檔案館, 1994年 第3期, pp. 16-17.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으로 타국에게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핵무기선제불사용(No First Use)원칙’을 공식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특히 핵을 보유하지 않은 비핵국가들이 핵보유국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핵심 사항이다.

핵무기 실험에 성공한 당일 중국관방은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중국이 핵무기의 만능을 믿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중략)...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방어를 위한 것으로, 중국인민이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표명하였다.<sup>9)</sup> 중국이 이러한 태도를 취한 것은 자신과 미국 등 다른 핵보유국과의 도덕적 차별성을 극대화 시키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상대의 핵보유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 있다는 선제공격 원칙을 줄곧 견지해왔다. ‘핵 없는 세계(nuclear free world)’를 제창한 오바마 시기 들어와서야 그러한 입장이 변화되었다. 즉 핵을 보유하지 않고, NPT 조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잠재적 핵경쟁자나 북한과 같은 소위 ‘불량국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 있다는 공세적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어 중국과 차이가 있다.

둘째, 중국의 핵무기는 상대에 대한 압도적 핵전력 및 제2차 보복능력 확보가 아닌 상대의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최소억제전략은 냉전시기를 거치며 미국과 소련이 서로를 거둬들임 완전히 궤멸시킬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의 범주에서

9) “我國第一顆原子彈爆炸成功,” 人民日報 1964年 10月 17日자 참조.  
<http://www.people.com.cn/GB/historic/1016/3435.html> (검색일: 2009년 8월 9일).

핵무기를 다량 개발한 사실과 구별된다. 이는 미국과 소련처럼 핵무기 경쟁에 빠져 막대한 비용 낭비를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타국의 위협 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불하려는 것이었다. 강대국과의 무리한 핵경쟁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경제성장에 투여한 것은 당시 신생국 중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전략적 행태였다. 이는 오늘날 목도되는 중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통해 현실적인 판단이었음을 증명하였다.

## (2) 학계의 반응

“양탄일성(원자폭탄, 수소폭탄, 인공위성: 兩彈一星)은 중국의 국방력 뿐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장저민(江澤民) 전주석의 발언은 중국에게 있어 핵이 중화민족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키는 동시에 국가의 안보에 기여하고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국의 핵개발 및 핵개발에 대한 원칙과 입장은 중국 관방뿐 아니라 학계와 군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1945년 미국이 핵을 개발하고 소련이 1949년 핵을 잇달아 개발하여 양 강대국 간 정세가 긴장되고 핵무기 군비경쟁이 가시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자신이 국제무대에서 큰 발언권을 가지지 못한 대다수 개도국들의 입장에 섰을 뿐 아니라 개도국과 함께 미소 양국의 핵패권에 대항했다고 주장한다. 중국 학계는 중국의 핵억제사상이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핵억제이론(nuclear deterrence theory)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미국 등 핵보유국들이 핵능력을 자신의 국력의 자산으로 여기고, 다른 나라를 억압하여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목적을

이루려하는데 반해 중국 자신은 오로지 다른 패권국가가 자신에 대해 핵전쟁을 일으키거나 핵을 통한 궤교를 부리는 것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싸우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굴복시킨다(不戰而屈人之兵)’는 손자병법의 유무(柔武)사상이 오늘날 중국의 핵전략문화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 내부에서는 핵문제에 관하여 중국이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비단 제3세계 뿐 아니라 점차 선진국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중국의 소프트 파워가 강화되고 있다는 자평이 나온다.<sup>10)</sup> 중국 공산당의 핵윤리관이 줄곧 맑스레닌주의를 기반으로 발전해왔는데 특히 국가발전전략사상과 궤를 같이하며 변화해왔다고 주장도 주목할 만하다.<sup>11)</sup> 그에 따르면 중국의 핵무기산업은 1960-70년대에는 정치적 가치, 1980-90년대는 경제적 가치, 그 이후는 경제적, 생태적 가치에 주목하며 진화해왔다는 것이다. 1960-70년대에는 핵개발을 통해 핵보유국의 안보위협을 억제하는 정치적 가치가 높게 인식되었던데 반해, 개혁개방시기에는 원자력에너지의 경제적 효용성이 주목받았던 시기였다. 이후 호금도(胡錦濤)의 과학적 발전관(科學發展觀)에 따른 원전의 개발은 경제적 효용 및 청정에너지를 창출함으로써 보다 조화롭고 안전한 사회, 즉 조화세계(和諧世界) 건설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원자력

10) 청화대학교 팡중잉(龐中英) 교수가 책임자를 맡은 중국과기부 국가 소프트사이언스 연구계획 “중국의 소프트파워 연구” 프로젝트(2005DGQ4B118)의 연구성과물, 劉興華, “國際道義與中國外交,” 『外交評論』, 2007年 第96期, pp. 47-48.; 鍾龍彪, “中國國際軍備統制政策演變論析,” 『當代中國史研究』, 2009年 第16卷 第5期.

11) 劉鎮江외, “中國共產黨核倫理觀的演變,” 『湖北大學學報』, 2008年 第35卷 5期, pp. 44-46.

발전소를 대량으로 건설해왔으며 현재 중국의 원전규모는 세계 4위에 도달했다. 원자력 중장기 발전계획(2011-2020), 원자력 발전전략 액션 플랜(2014-2020) 등에 따라 원자력 발전용량을 계속 확대해 왔다. 오는 2030년까지 총 110기의 원전을 새로 건립할 예정이며, 2050년까지는 400기 이상의 원전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 관련 기술도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로서, 올해 8월에는 중국이 최초로 자체 개발한 3세대 원자로 격납용기가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 Ⅲ. 중국의 핵전력 : 미국 대응의 관점

#### 1. 미국의 대중 핵무기 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

중국에게 미국은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공하는 핵심 대상국이다. 미국은 최초의 핵무기 개발국이자 오늘날 가장 강력한 핵전력을 지닌 핵강국이다. 그러한 미국과 군사안보적으로 상호신뢰가 형성돼있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예민하게 느끼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핵정책 및 안보정책 전반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핵정책에 대해 줄곧 부정적으로 평가해왔다. 중국이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알려졌을 당시 미국은 중국을 소련보다도 더 위험한 적으로 인식했고, 소련과 손잡아 중국의 핵개발을 방해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직접적 군사적 타격 방안도 검토했었다.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구상에 분명 자신을

겨눈 의도가 내재해있다고 여긴다. 자신의 핵실험이 성공한 후 미정부 내 각 부처들이 NMD의 배치여부, 또 배치한다면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얇은 방어체계를 갖춰야 하는지 아니면 소련을 겨눈 두꺼운 방어체계를 갖춰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이 존슨(Lyndon Baines Johnson)정부에서부터 닉슨(Richard Milhous Nixon)정부의 안보계획까지 줄곧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이 소련과 탄도미사일방어(Anti Ballistic Missile)조약을 맺은 것도 소련의 탄도미사일방어조약에 대응함과 동시에 중국의 전략적 핵무기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sup>12)</sup>

특히 2002년 부시행정부가 채택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Nuclear Posture Review)는 중국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은 겉으로는 2002년 NPR에 따르면 미국이 비핵국가에게도 핵무기로 위협한다며, 미국핵전략의 변화가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노력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것이라는 정도의 비판에 머물렀지만, 내부적으로는 특히 미국이 자신을 급박한 사태에선 핵무기를 사용해 공격할 수 있는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는 사실에 상당히 자극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sup>13)</sup> 인도나 파키스탄도 핵무기 개발국이지만 두 나라는 명단에 없는 반면 자신만 타격대상에 오른 사실, 더욱이 '대만문제를 둘러싼 군사적 대치'를 급박하고 위험한 긴급상황 세 가지 중 하나로 상정한 사실 등은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인식을 제고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유독 중국에게 핵무기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에도

12) 胡禮忠, “中國的核試驗與中美核關係: 中美學術界的相關研究述評,” 『歷史教學問題』 2008년 제3기, p. 90.

13) 劉長虹, “不擴散條約現在面臨的挑戰,” 『解放軍報』 2002년 4월 22일.

어떤 저의가 있다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미국은 2010년 핵태세보고서(NPR)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국들의 핵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투명(transparency)” 용어만 총 17번을 사용하였다. 더욱이 중국의 낮은 투명성이 미국 및 중국 주변국들의 우려를 조성하는 요인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같은 핵보유국인 영국이나 프랑스는 놔두고 유독 중국과 러시아에게만 투명성을 까다롭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내재해 있다고 여긴다. 중국이 보기에 자신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핵무기만을 보유한 국가로서, 핵의 투명성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핵강대국(미국)을 상대해야하는 자신의 불리한 핵정책의 효율성을 고려한 이성적 판단에 다른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자신에게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함으로써 자신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주변국의 불안을 조성하며, 심지어 정권의 안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개연성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sup>14)</sup>

같은 맥락에서 중국은 오늘날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를 철저히 중미관계의 틀에서 본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세아 재균형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 미국이 자신의 성장 특히 동아시아 역내 영향력의 증대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해당지역에 대한 중국의 그리고 미국의 핵전력에 미세한, 하지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바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이라고 여긴다.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 동아시아 배치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객관적으로 중국의 핵전력이

14) 滕建群, “中美核領域對話的回顧與展望”, 『國際問題研究』 2011年 第3期, p. 28.

열세에 처해있는데 그나마 조금 갖춰져 있는 중국의 일부 핵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추면서 그것에 장착하는 요격 미사일 수를 증가시키거나 혹은 레이더 탐지범위를 확대하거나 성능을 강화시킨다면 중미 간 핵전력 구도에서의 추는 더욱 미국 쪽으로 기울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활용하여 중국의 ICBM 핵미사일 전력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유사시 그에 대비한다면 중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최소 보복능력이 더욱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의 눈에 자신이 핵전력을 강화하고 현대화 해나감으로써 미국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이 주요변수가 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사드 배치가 정치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심각한 전략적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략적 관계에서 보았을 때 향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경계는 러시아에 대한 그것을 초월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최소 수준의 핵 무기 고로는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핵 무기 고로는 미국에 비해 매우 빈약한 수준이다. 만일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핵 공격을 감행한다면 중국은 그에 대한 2차 핵 보복능력을 확실하게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반드시 2차 핵 보복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2016년부터 불거진 한국의 사드 배치 논란은 중국에게 핵무기 관련 정책과 방향성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군개혁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두드러짐으로써 시주석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은 사드를 단순히 북한 대응용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사드를 통해

향후 미국의 MD시스템에 한국과 일본이 편입됨으로써 중국 자신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이 완성될 것이라 보고 있다.<sup>15)</sup> 이에 대한 반발과 대응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군계에서 나오고 있다. 사드 배치 완료 후 중국이 군부의 목소리에 힘입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핵무기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sup>16)</sup>

## 2. 중미 핵전력 비교<sup>17)</sup>

냉전시기 러시아와 무한대의 핵 경쟁을 벌인 바 있는 미국의 오늘날 핵전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비록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은 핵무기 보유 및 관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핵무기를 점진적으로 감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양과 질 모두 중국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현재 700여개의 핵미사일에 2,000여개의 핵탄두를 실전배치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2015년 기준 160여기의 미사일에 260기에 달하는 핵탄두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핵무기 전략의 절대 수치에서 미국이 미사일 수에서는 약 5배, 핵탄두 수에서는 약 20배의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은 미국과 달리 핵무기를 육해공 전방위 차원에서 활용하는데 필요한 핵 3원 체제 즉 대륙간 탄도탄(ICBMs),

15) 董向荣, “‘萨德’带来三大负面效应,” 青岛全搜索电子报, 2016年 8月 4日.

16) 진찬룡(金燦龍)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와 저자와의 인터뷰, 2017년 7월 20일.

17) 신성호, “미중 핵 군사전략 경쟁” EAI 연구보고서, 2017년 2월, pp.15-18.



잠수함발사탄도탄(SLBMs), 전략폭격기(Heavy Bombers) 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미국이 핵 3원 체제를 통해 공세적인 핵선제공격 뿐 아니라 상대의 재공격조차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2차 보복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해, 중국은 적은 수의 지상발사미사일 시스템만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그조차 경보에 따라 버튼만 누르면 즉각 발사가 가능한 미국에 비해 중국의 핵탄두는 저장고에서 꺼내 발사대로 옮기고 연료를 주입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에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 외에도 핵전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잠수함발사탄도탄의 경우, 사정거리가 중국 주변지역과 러시아, 인도, 괌, 알래스카 정도를 커버할 뿐 태평양을 지나 미대륙까지 도달하기에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미국이 각종 첨단 무기 시스템을 활용하여 중국 주변을 탐색하고 측정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상황인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핵전쟁이 발발했을 때 중국이 설령 가용가능한 모든 핵전력을 사용할지라도 여전히 미국이 중국에 비해 월등한 2차 핵보복 능력을 갖춘 상태이다.

〈표 1〉 미국과 중국의 핵능력 비교

|                      | 1996 | 2003 | 2010 | 2017<br>(최대 추정치) |
|----------------------|------|------|------|------------------|
| 중국의 총핵탄두             | 19   | 40   | 68   | 106(160)         |
| 미국의 총핵탄두             | 7646 | 6488 | 4806 | 2144             |
| 미국의 선제공격시 사용되는 탄두의 수 | 23   | 91   | 132  | 157              |
| 생존이 가능한 중국의 핵탄두 수    | 4    | 6    | 13   | 15(27)           |
|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수     | -    | -    | 24   | 44               |
| 중국의 선제공격시 사용되는 탄두의 수 | 19   | 40   | 68   | 106(160)         |
| 생존이 가능한 미국 핵탄두 수     | 339  | 3146 | 2240 | 998(988)         |

자료: Eric Higenbotham, "The U.S.-China Military Scorecard: Forces, Geography and the Evolving Balance of Power 1997-2017," RAND Cooperation, 2015.

### 3. 중국의 핵무기 전력 제고 노력

시주석은 2013년 3월 후진타오 전 주석으로부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이어받은 직후 곧바로 육군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자국 국력의 증대에 따라 주변국과의 갈등뿐 아니라 미국과의 경쟁구도도 점차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인식 속에서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군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우선 시진핑이 조장으로 앉은 국방군사개혁영도소조가 창설되었다. 또한 중국의 평시 체제인 7대 군구체제가 전시체제인 5대 전구체제로 바뀌었다. 이는 그동안 정치화되고 비대해진 육군을 유연하고 기동성 있는 조직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미국에 대한 심한 비난을 가하지 않고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조용히 핵전력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MD체제에 대응해 자국 핵전력의 생존율을 높이고, 또 단순히 핵 보복 능력을 갖추는데 머물지 않고 핵전쟁 억제 및 핵전쟁 발발시 통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핵미사일의 양과 질을 점차 보완해 나가는 추세이다.<sup>18)</sup>

시진핑 주석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군개혁 조치는 그동안 정치화 되고 방만해진 육군조직을 개편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해군과 공군을 강화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이 과정을 통해 총 세 개의 조직이 신설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로켓부대(The PLA Rocket Force)이다.<sup>19)</sup> 이는 그동안 중국의 핵전력을 맡아온 제2포대(the Second

18) 정육식, 「글로벌 아마겟돈: 핵무기와 NPT」, (서울: 책세상), 2010, p. 209.

19) 신성호, (2017) p. 18.

Artillery Force)를 새로 재편한 것이다. 이 조직은 향후 중국의 핵무기 전력을 단순히 육지뿐 아니라 해양과 공중으로까지 확대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이뤄나가기 위하여 중국의 군사력 중에서 특히 핵전력을 보강하고 갖춰나가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주로 중국의 주변지역에 넓고 강하게 포진돼있는 미국 우위의 군사력 구도를 점차 역전시켜 나가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뿐 아니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자신의 영향력 수단을 확실히 갖춰나가고, 필요시 미국의 개입과 군사적 관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약한 핵전력뿐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 할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국은 최근 군수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를 확보하거나 아프리카 지부티 항구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확장 추세는 대만과 남중국해를 자신의 영토와 세력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 관방의 일관된 입장 그리고 그에 대한 중국 대중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 나아갈 것이다.


#### IV. 결 론

중국의 핵무기 개발은 미소 핵강대국을 포함한 치열한 대외적 핵 외교의 현실주의적 고려에 따라 이뤄진 것이었다. 핵의 개발부터 핵의 운용 전 과정에 특히 강대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심도 있게 투영되어 왔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시기를 거치며 광폭한 핵무기 경쟁을 벌임으로써 천문학적인 비용을 소요한 것에 비해 중국은 강대국 간 핵전력

강화 경쟁에 뛰어들지 않았다. 대신 방어적 핵전력을 대변하는 ‘핵무기 선제불사용’ 원칙과 ‘최소억제전략’을 통해 자국의 생존을 도모하면서 경제성장에 주력했다. 이는 오늘날 중국의 국력증가 및 강대국화라는 객관적인 성과로 나타나며 중국의 그러한 핵무기 정책이 유용한 것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오늘날 가장 많은 핵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지만, 중국은 러시아와는 미국패권에 대항하는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핵전력을 포함한 안보정책은 따라서 대미인식 및 동아시아 안보정세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시진핑 시기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직접적 충돌을 우회하고 자국의 국력성장에 더욱 주력하지만 그러나 전임 시기에 비해 강대국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졌다. 그리고 전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필요한 역내 기반을 착실히 쌓는 데에 국가 정책의 중점이 놓여있다. 시주석은 ‘중화민족의 대부흥’을 공식적으로 언명한 최고지도자로서 중국의 강대국화가 진행될수록 주변국의 우려 또는 마찰의 공간이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 역내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의 경쟁과 갈등구도가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를 포함한 국방력을 전반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외부 특히 미국의 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필수적으로 여겨진다.

시진핑 집권 2기가 곧 시작될 것이다. 첫 번째 100년인 2020년, 즉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코앞에 두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진핑 정부가 핵전력 강화를 포함한 군사력의 전반적인 강화를 추구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중국의 핵전력 강화는 여러 가지 차원의 민감하고도 위험한 요소들을 노정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나 관련기관은 중국 핵전력의 성장추세를 체크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력 강화를 자국 국방력의 상대적 손실로 받아들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미국 국방비를 시퀘스타와 무관하게 더욱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핵무기의 삼원체제인 대륙간 탄도탄, 잠수함발사탄도탄, 그리고 전략폭격기를 통한 완벽한 육·해·공 핵전력을 갖추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중국이 자국의 상대적 전력을 키워나가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특히 상대의 방위력 증강이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는 냉엄한 안보딜레마 속에서, 또한 미국과의 군사적 대립이나 마찰을 최대한 우회하려는 중국의 입장에서, 이 외에도 ‘핵 없는 세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전 세계적 분위기 속에서 사드를 계기로 중·러 간 군사협력을 크게 강화하거나 핵보유고를 가시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중국에게 양면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중국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선제불사용 원칙과 최소억제전략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 참고문헌 ]

- 김태우. “지역패권 확보 위해 핵보유 강행: 중국 핵과 우리의 입장.” 『통일한국』 1993년 8월호(통권 제116호).
- 신성호. “미중 핵 군사전략 경쟁” EAI 연구보고서. 2017년 2월.
- 정욱식. 「글로벌 아마겟돈: 핵무기와 NPT」. 책세상. 2010.
- 진찬룡(金燦龍)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와 저자와의 인터뷰. 2017년 7월 20일.

董向荣, “萨德带来三大负面效应,” 青岛全搜索电子报, 2016年 8月 4日.  
謝益顯 著, 鄭載南 譯, 『新中國外交理論과 原則』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95).

胡禮忠, “中國的核試驗與中美核關係: 中美學術界的相關研究述評.” 『歷史教學問題』 2008년 第3期.

編輯部, “中國核武器: 一生的事業.” 『中國核工業』.

劉西堯, “我國‘兩彈’研制決策過程追憶.” 『武漢文史資料』 2011年 第2期.

『黨的文獻』 中共中央文獻研究室與中國檔案館, 1994年 第3期.

“我國第一顆原子彈爆炸成功” 人民日報 1964年 10月 17日.

胡禮忠, “中國的核試驗與中美核關係: 中美學術界的相關研究述評.” 『歷史教學問題』 2008년 제3기.

劉興華, “國際道義與中國外交.” 『外交評論』, 2007年 第96期, pp. 47-48.

鍾龍彪, 中國國際軍備統制政策演變論析. 『當代中國史研究』 2009年 第16卷 第5期.

劉鎮江, “中國共產黨核倫理觀的演變.” 『湖北大學學報』 2008年 第35卷 5期.

劉長虹, “不擴散條約現在面臨的挑戰.” 『解放軍報』 2002年 4月 22日.

滕建群, “中美核領域對話的回顧與展望.” 『國際問題研究』 2011年 第3期.

Eric Higenbotham, “The U.S.-China Military Scorecard: Forces, Geography and the Evolving Balance of Power 1997-2017,” *RAND Cooperation*, 2015.